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르성전 축복성회 & 찬양예배



2023년 2월 19일(주일)~23일(목), 홋카이도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순복음동경교회 선교단이 홋카이도 삿포르시에 있는 삿포르성전을 방문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의 선교기간동안, 삿포르신학교신학생들의 전도로 처음 교회(삿포르성전)에 발을 내딛은 많은 새신자들과 함께 축복성회와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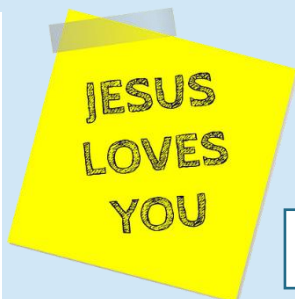
- P2 : 삿포르성전 축복성회 & 찬양예배
- P3 : 양승호 목사 신년축복성회
- P4 : 담임목사 컬럼 “인생의 유라굴로”
- P4 : 순복음아이린교회 축복성회



2023년, 하나님께 받은 순복음동경교회의 새로운 목표인 **어린이식당문화교실**(가칭) 과 **야외식당**(가칭) 의 섬김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기도회가 격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기도회 :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1시

발행 || 순복음동경교회
 편집 || 문서선교회
 주소 || 신주쿠구카부키초2-2-19
 전화 || 03-3232-0667
 FAX || 03-3232-0729
 WEB || www.fgtc.jp/kr/



순복음동경교회
 홈페이지는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신문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fgtc.jp/kr/>



훗카이도선교

2023년 2월 19일(주일)~ 23일(목)

삿포로성전 축복성회 & 찬양예배

2023년 2월 19일(주일) 삿포로성전 축복성회 첫 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 누가복음 4:27 —

2월19일(주일), 훗카이도에 도착한 선교단은 삿포로성전을 방문하여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축복성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배를 시작으로 선교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7번째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나아만 장군에게 나타난 치유의 기적을 통해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체험한 기적의 배경에는 주위 사람들의 사역과 아랫사람의 의견이 있었던 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신앙의 동역자가 얼마

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심어주었습니다.

예배 후 거행된 임명식에서는 삿포로성전의 전재도 성도와 한기진 성도가 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축복성회 모습



전재도 집사



한기진 집사

2023년 2월 22일(수) 삿포로성전 축복성회 둘째 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 누가복음 5:4~7 —

2월 22일(수), 삿포로성전의 성도들과 함께 한 식사교제가 끝난 후, 삿포로에서의 두 번째 성회가 열렸습니다.

성회 첫 날에 이어 두 번째 성회를 인도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말씀에 의지하여”란 제목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과 4차원의 영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의 성취를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함으로 꿈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과 말에는 큰 힘이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4차원의 영성을 체험하여 성도들의 각자의 꿈이 성취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식사회



삿포로 성전의 성도들



신학생 헌금찬양

2023년 2월 23일(목) 삿포로성전 찬양예배

2월 23일(수)에는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와 싱어즈가 인도하는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찬양예배는 순복음동경교회의 대성전과 이원 생중계로 들려져 삿포로성전과 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승호 목사 “신년 축복성회”

2023년 1월 4일~ 6일

순복음동경교회는 뉴욕순복음연합교회의 담임목사 양승호 목사를 초청해 2023년 1월 4일(수)~ 6일(금)까지 3일간 신년 축복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 첫 날

“예수께서 여기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 중략 -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누가복음 19:1~10 -

1월 4일(수), 양승호 목사는 “사랑을 품어만 쥐도 변화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물질 지상주의였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난 후 가난한 자를 측은히 여기며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다짐할 정도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 성경구절을 통해 크리스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변화(성화)될 수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이웃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성공과 실수, 슬픔과 기쁨을 품고 용납하면 자기자신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 축복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길 권면했습니다.



성회 둘째 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 중략 -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사도행전 2:42~47 -

1월 5일(목), 성회 둘째 날에는 “영혼의 흔적이 살게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달리 계산없이 각자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성령안에서의 교제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며, 예배를 즐겨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축복받게 될 것을 선언하며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 중략 -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 빌립보서 2:12~18 -

1월 6일(금) 성회 마지막 날, 양승호 목사는 “그냥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유없이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품으며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 컬럼 “인생의 유라굴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 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 사도행전 27 : 21~26 —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담대히 일어나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여 인생의 큰 풍랑을 견뎌냈을까요?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사람들에게 붙잡혀 로마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을 신청하기 위해 로마로 연행되는 중, 루기아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이탈리아행 범선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게 되었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어도 마음은 자유로웠던 바울이 기도하던 중 한겨울에 항해하면 큰 위험이 있다는 계시를 받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주와 선원들로부터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출항시킵니다. 선주는 손실을 생각하고, 선장들은 자신들의 항해기술을 과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순조로웠지만, 갑자기 강풍(유라굴로)을 만나 배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는 오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교양·인격·과학문명을 자랑하면서 오만과 탐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처음 유라굴로를 발생시킨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유라굴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풍랑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오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만과 탐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만과 탐욕을 이용하여 유라굴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은 오만과 탐욕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유라굴로를 극복했을까요?

첫째, 명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유라굴로에 속해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선장과 선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단 하나이며 불변하며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유라굴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오만과 탐욕을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되어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풍랑을 회피하고 연명할 것인가, 양자택일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3.1.29(주일)

순복음아이린교회 축복성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마태복음 6:33 —



1월 29일(주일) 14시,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있는 순복음아이린교회에서 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성장시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천국으로 안내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신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은 하지말고 믿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순복음일본총회의 일원이 된 순복음아이린교회가 더욱 부흥되어 보다 힘찬 복음사역을 해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